

이나시오 성인

자서전

묵상

2003년 현재의 예수 수도회의 웹페이지에서 가져옴
2005년 11월 서부지역 KCLC의 순교자 공동체에서
서부지역의 각 지역공동체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편집함

제1장 이나시오의 젊은 시절

1. 스무 여섯 살 때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붙잡는 사람이었다. 명성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크고도 헛된 욕망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즐기고 있었다. 불란서군의 공격을 받은 요새에서...
2. 그가 부상으로 쓰러지자 요새 수비병들은 요새를 즉각 프랑스군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3.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먹지도 못하고 임종이 가까워진 것 같았다. 성 요한 축일이 가까워질 무렵 의사들은 그의 건강에 관해 거의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지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했고, 그는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 전날 성사를 받았다. 의사들은 자정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죽을 것으로 알리고 일러주었다. 병자는 성 베드로에게 각별히 신심을 바치고 있었는데 우리 주께서는 그날 자정부터 병이 호전되기를 바라셨다. (자서전 43-44쪽)

62세가 되어 이나시오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다. 오랜 망설임 끝에 그는 친한 벗에게 자신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확실히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해 숙고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젊은 시절 이나시오는 군인이었고, 자만에 가득 차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청년으로서, 당시의 다른 젊은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당시에 만연했던 사조와 유행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무분별한 헛된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팜플로나의 성곽에서 영주는 이나시오의 끈질긴 전투 주장과 훌륭한 전략에 설득 당하여 함께 있던 모든 부하와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적 전투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방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나시오는 한 쪽 다리가 부러지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이들은 즉각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요새는 함락되었다. 승전한 프랑스 병사들은 이나시오의 용맹성에 감탄하여 부상당한 이나시오에게 집으로 호송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집 전지에서 집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지만 들것에 실려 호송되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출혈이 심하여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상처를 입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러한 일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걸림돌이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심한 부상 가운데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나시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 베드로와 바울로 축일을 기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의 생애에 개입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보상과 돈, 명예, 좋은 평판을 얻고자 기대한 곳에서 이나시오는 실패와 수치, 부상 이외에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교차로였다.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성찰

1. 당신은 하느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가?
이때 당신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2.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인격(지성, 의지, 양심, 자유)를 계발시키고자 하는가?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인격계발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은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순간들을 벗들과 나누는가?
4. 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5.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중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거나,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있으며, 또한 신중한가?
6.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높은 곳에 하느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각자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의지와 이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모든 영신사정에 있어서는 더욱 진보할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189번)

성서 말씀 묵상

- 마르코 8,31-37 :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NOTE:

제2장 병석에서의 과거 회상

7. 주님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그는 간혹 읽기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그 내용을 헤아리는 것이었다. “성 프란치스코나 성 도미니코가 한 일을 나도 하면 어떨까?”하고 그리하여 그는 좋아 보이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 보았으며, 늘 험난하고 심각한 일들을 늘 자신에게 제안하면서 자기로서는 그것을 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늘 “성 도미니코가 이것을 했으니깐 나도 해야한다.”는 식이었다. 이같은 생각은 상당히 오래 계속되긴 했지만...(자서전 46쪽)

이나시오는 오랜 시간을 지내고야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조직 골절상을 봉합할 때 골조직이 잘못 맞추어진 까닭에 “한쪽 다리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 보기에다 흉하였다. 그는 사회적 활동을 해야만 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손상을 참을 수 없었고, 또 이런 손상이 자기를 불구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리의 절단 가능성을 확인한 후 그는 채수술을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자만에 대한 회생물이 될 것을 결심하고..... 심한 통증을 땀아온 인내심으로 잘 참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은 심했으나, 흥한 모습을 없애고 장차 하기로 마음먹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심한 통증도 참아낸 것이다. 세상의 이목을 의식하고 유행을 따라서 살기가 이토록 힘들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성찰할 수 있게 시간을 연장하셨다. 이나시오의 병세는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에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도서관에는 단지 예수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만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낯선 길을 알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살아야했던 그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하느님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써 예수님이나 성인의 길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자만과 허영을 만족시켜줄 군대에 복귀하거나 사회적 공적을 쌓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였다. 그는 지칠 때까지 생각을 계속하였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에게 강요된 고독은 오히려 큰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의 마음 안에서 갈등은 계속되어 한편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의 용솨음치는 양심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는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각이 그에게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찰

- 1.당신은 고독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자신에 대해 반성하기를 두려워하는가?
- 2.당신은 자신의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생각

은 없는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한가지 써 보시오.

3.당신은 하느님의 뜻과 당신 자신의 뜻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갈등은 어떤 결과로 끝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로 인하여 슬퍼할 것인가?

이나시오적 통찰

“사람은 사물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만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또 방해가 된다면 그만큼 배척해야 한다.”(영신수련 23번)

성서 말씀 묵상

마르코 10,17-27 : 부자청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태오 7,13-14 :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NOTE;

제 3장 인생을 위한 방향선택

8. 앞의 공상은 씩씩한 기분을 남기는데 다른 공상은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갔다. 차츰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영들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다. (자서전 46쪽)
9. 이 수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식견을 쌓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더욱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고 속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자서전 47쪽)

이나시오는 전투와 투쟁으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생활을 돌이켜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상반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름을 느꼈다. 그는 자기에게 슬픔을 주는 것들(명예추구, 세상의 좋은 평판,...)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여 두 가지 길을 비교하여 자신은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에 직면하고자 한 것이다.

이나시오는 창가에 서서 시골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노상결투, 법정투쟁, 과시적 심리와 좋은 평판의 추구, 허황된 말과 무례함으로 가득 찬 멋있고 화려한 기사의 풍치를 그려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은 내용이 없는 인간적 욕망이었고 허황된 꿈이었다. 과거에 그는 항상 하느님을 멀리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외면했었다.

병세가 호전되기까지 긴 시간동안 그는 독서와 묵상을 계속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의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그가 하느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도록 인도하였다.

이나시오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관대하던 그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은총으로 변화된 그는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

성찰

- 1.당신은 부나 명예, 높은 직책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 2.당신은 자신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원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는가?
- 3.당신을 사로잡는 강한 욕망과 그로 인한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4.당신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묵상이나 영의 식별(하느님의 뜻을 추구)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모든 선택에 있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 즉 한결같이 내가 창조된 목적인 우리 주 하느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영신수련 169번)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4,1-11 :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NOTE;

제4장 아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모님을 뵈

10. 그가 이 경건한 소망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생각들은 잊혀지기 시작했으며, 이 열망은 어떤 현시로 더욱 굳건해졌다. 어느 날 밤, 깨어있는데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았다. 이 환시에서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날의 생활 전체, 특히 육에 따른 행실에 대해 심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전에 머리 속에 그리던 모든 상상들이 말끔히 씻겨나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바로 그때부터 이 글이 쓰이는 1553년 8월까지 그는 육의 행실을 조그마한 것도 용납한 적이 없었다. ...형과 집안 식구들은 그의 외형적 변화에서 그의 영혼에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자서전 47쪽)

이나시오와 예수 사이의 우정은 점점 깊어만 갔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예수는 그의 가장 친한 벗이 되었고, 친한 친구들이 그렇듯이 예수 또한 이나시오가 자기 모친인 마리아를 알기를 원하셨다. 예기치 않던 이 관여는 이나시오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의 좋은 원의에 굳은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로 하여금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고아가 아니다. 그들은 어머니-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제 부모나 형제, 남편과 자식,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백배의 상을 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때부터 이나시오는 예수 성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특히 생활 중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어려울 때에는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 예수와의 우정과 친밀감을 얻고자 하였다.

한 예를 들면, 그는 회심하던 당시에 성모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구 합니다. 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멀리할 수 있도록, 무질서한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생활을 고쳐 절서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세속적인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하여주소서.”(영신수련 36번) 이나시오는 더 나아가 성모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과 하느님으로부터 “예수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아래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얻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영신수련 47번)

성찰

1. 당신의 삶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벗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변화해가고 있는가? 그들은 당신의 변화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가?

2.당신은 성모니;a의 중재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고, 헛되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며,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 생활을 개선하고 질서 있게 살려고 진정으로 원하는가?

3.당신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자신을 봉헌하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점에 있어 진보해 가고있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만일 오관 활용에서 성모님을 본받고 싶은 이는, 준비기도 때에 성모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위하여 당신의 성자께로부터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부탁할 것이고, 또 감각 관능 하나를 목상한 끝에마다 ‘성모성’ 한 번을 바칠 것이다.”(영신수련 248번)

성서 말씀 묵상

필립비서 3,7-14 :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붙들려고 달음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NOTE;

제 5장 회복기 동안 자신의 선택을 확정지음

11. 이들 책에서 재미를 느낀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열전'에서 요점이 되는 것들을 간추려 베껴 생각을 했다. ... 정성을 다해 종이를 다듬고 줄을 반듯반듯이 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붉은 잉크로, 성모님의 말씀은 푸른 잉크로 써 내려갔다.(그의 필적은 훌륭했다.) 그는 글쓰는 일과 기도에 시간을 반반씩 할애하였다. 그가 가장 위로를 받는 일로는 별빛 찬란한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잦아지고 점점 더 그 시간은 길어져 갔다. 그 결과 그는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는 커다란 열망을 마음 속에 새차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거듭 되새기며, 완전히 회복하여 길 떠날 수 있는 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자서전 48쪽).

기록하지 않은 채 읽기만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읽은 것을 반성하고 요약했으며, 읽은 것에 심취하여 음미하였다. 그는 자신과 또 하느님과의 대화에 열중했다. “글 쓰는 일과 기도에 시간을 반반씩 할애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인생을 보고 판단하면서 하느님께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을 취하고자 준비하였다. 이것은 “활동 중의 관상“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붉은 잉크로 “ 썼는데 이는 피의 색깔이고 생애의 표징이었고 “성모님의 말씀은 푸른 잉크로 “ 썼는데 이는 하늘과 별들의 색깔이었다. “좋은 필체로“ 썼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사소한 것까지 자신의 생애를 적었다.

하늘과 별들은 보잘 것 없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과 별들은 또한 그에게 “우리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주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늘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얼마나 작은가?“ 이냐시오는 관상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보다 하느님과 자기 이웃 형제들을 위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성찰

- 1.당신은 하느님을 안다는 것과 하느님을 맛본다는 것(“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시편 34,9)의 차이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가?
- 2.당신은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음미하는 순간이 생애 중에 있어 왔는가?

3.당신은 이러한 경험을 기록한 메모록을 가지고 있는가?

4.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성서의 세 어휘나 구절은 어떤 것인가?

이나시오적 통찰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또 만족시키는 것은 풍부한 지식이 아니라, 사물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신수련 2번)

성서 말씀 묵상

루가 10,30-42 :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다.“

NOTE;

제 6장 가족으로부터 떠나감.

12 형은 그를 이 방 저 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그의 창창한 미래와 관직을 생각해 보라고 그의 의향을 꺾을 목적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해 가면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심을 감추는 것에 대단히 민감해 있었기에 진심을 감추지 않고서, 형의 집을 떠나 올 수 있을 정도로만 대답하였다.(자서전 49쪽)

이나시오의 변화는 가족들의 불화를 자아냈다. 그는 12형제 중 막내였다. 가족을 이끌어갈 책임을 지고 있던 맏형은 이나시오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25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였고, 모든 가족들은 이나시오를 심히 염려하였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오 10.,37-39)라는 복음 말씀에 기준을 두었던 이나시오는 결단력 있고 용기 있게 이러한 태도에 맞섰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점차로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다짐하였다. 그는 예수를 가까이 따르고자 했으며, 외적 행동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예수와 같이 되고자 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를 따르려고 생각하였다.

신중한 그의 맏형은 이러한 이나시오의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염려 가운데 그의 맏형은 이나시오에게 많은 것을 물어 보았고, 또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나시오가 그러한 길을 걷게 되면 인생에 실패할 것이라고 걱정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나시오에 대해 말할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였다. 당시 가족들은 이나시오가 가족들을 도와 주었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이나시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군주의 신하로서 또 기사로서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부하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으며 심지어 적들조차도 그를 존경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에게 봉사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봉사에 필요한 자질인 건강한 지성과 강한 개성을 가졌고, 깊은 영혼의 소리에 도취되었으며, 또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결심이 섰고--그는 전진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가족을 남겨둔 채 순례의 길을 시작하였다.

성찰

- 1.당신은 가족이나 당신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단체를 위한 노예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당신의 결정과 생각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떠날 수 있겠는가?

2.당신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가?

3.왜 예수님은 장래가 촉망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지라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하느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요, 모든 선한 것이 하느님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Bartoli,이나시오의 생애 4권 355쪽 36).

성서 말씀 묵상

루가 5,1-12 :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 “그들은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NOTE;

제 7장 몬세라트에 도착하여 총고백성사를 봄

17. 몬세라트에 당도하자 기도를 올리고 나서 고해신부를 찾아다녔다. 죄상을 적는 데 사흘이나 소비한 뒤 그는 총고백을 했다. 그는 고해신부에게 자기 나귀를 드리고, 또한 자기의 장검과 단검을 성당의 성모 제단에 간수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그 고해신부에게 그는 최초로 자기의 결심을 토로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느 고해신부에게도 그런 언질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자서전 55쪽)

이나시오는 기도하기에 알맞은 고독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조한 돌 투성이의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 마침내 몬세라트에 있는 베네딕트 대수도원에 도착하였다. 그는 도착하였을 때 여행에 지쳐 몹시 피곤하였지만, 성당 안에서 자신의 과거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철야기도를 바쳤다. 그는 자신의 칼과 단검을 성모의 제단에 바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자 하였다. “철야기도 동안 그는 앉지도 눕지도 않고, 단지 서거나 무릎을 꿇은 채 성모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였다.” 이날의 일은 성모님의 자애로운 눈길 아래서 가졌던 예수님과의 밀애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때부터 예전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맞게 스스로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침묵과 성찰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과거생활에서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하느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자신이 변화될 필요를 느꼈다. 그는 그 때부터 영원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몇 년 후 그는 “죄는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의 일생동안 애써야 할 가치가 있다.

죄는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사람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술회하였다.

이나시오는 하느님과 또 이웃과의 화해를 갈구하였으며, 가시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글로 써서 고백하였다. 후에 영적 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맑은 양심으로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교회와 진정으로 일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찰

- 1.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가?
- 2.당신은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교회와 화해하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는 원의를 늘 느끼는가?

3.당신은 영적 지도자에게 당신을 온전히 개방하고 있는가?

영적 지도자가 하느님의 뜻을 찾아 알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성화에 도달하는 유일한 지름길은 세속이 좋아하고 애착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애착하지 않는 데 있다.”(이나시오, General Examen)

성서 말씀 묵상

에페소 6,10-22 :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NOTE;

제 8장 이냐시오 성인이 세속적인 것을 모두 벗어버림

18. 1522년 3월 성모 축일 전날 밤, 그는 밤중에 몰래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주고 그토록 입고 싶었던 그 순례자의 의복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성모의 제단에 나아가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다. 순례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는 온 밤을 지새웠다.(자서전 55쪽)

1522년 3월 24일과 25일 사이의 밤은 예수님의 강생을 알리는 영보 축일이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강생의 신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이 순례자는 강생의 신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였다.. 그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필립비 2,5-11)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닮기를 원하였다. 또한 이냐시오는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는 한 가난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옷까지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벗어주었고, 대신 자기는 그가 입었던 자루옷을 걸쳤다. 그는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다르고,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되었다. 낡은 옷을 걸치고서 이냐시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냐시오 성인의 시복 때 몬세라트 수도원의 한 형제는 “이 순례자는 미치도록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고 말했다.

성찰

- 1.당신은 당신의 소유물과 돈, 음식 등을 가족이나 친구, 당신보다 덜 가진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당신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2.당신 마음 속에는 부나 가난에 대한 원의 중 어느 편이 더 우세한가? 즉,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 3.당신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요구하는 어떤 내적인 욕구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는가? 만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당신은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4.가난과 속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의 구절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영광을 위해서 양편이 다 같을 경우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고, 또 현실적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귀보다도 가난한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함을 선택하며, 명예보다도 극도로 업심여감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업심여감을 원하며.”(영신 수련 167)

성서 말씀 묵상

필립비서 2,5-11 :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NOTE;

제 9장 만레사에서 가난과 극기의 삶을 시작함

19. 그는 만레사에서 매일 음식을 구걸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고기와 술을 주어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주일에는 단식하지 않았고 술을 조금 받으면 마시긴 했다. 전에는 유행에 따라 머리 매무새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그의 머리는 굉장히 멋있었다) 이제는 제멋대로 자라게 두고 빗질도 이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엇을 머리에 쓰지도 않았다. 전에는 정성껏 다듬던 손톱과 발톱도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었다. (자서전 58쪽)

이냐시오는 몬세라트를 떠나서 바르셀로나로 향해 가던 중 만레사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10개월을 지냈다. 그 시기동안 예수의 뒤를 따르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인내성이 있었다. 그는 구걸하며 비참한 생활을 했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엄격히 금하였고, 외모는 일부러 자연 그대로 놔두었다. 이와는 달리 그는 자신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움직임에는 매우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만레사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 단계를 체험하였다.

첫째, 평화, "위대하고도 지속적인 행복",

둘째, 권태, 그는 기도하거나 미사에 참석하거나 묵상을 하는데서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였다. 이 때에 "70평생을 이런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하는 속삭임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 같았다.

셋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조명과 은총

성찰

- 1.당신은 외모를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돈을 들이는가?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2.당신은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해 주셨는가?
- 3.당신은 그리스도께 보다 잘 봉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활 태도나 계획(예를 들어 음식, 취침시간, 일 휴식, 기도시간 등)을 취하였는가? 당신은 이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 4.당신은 영적, 물질적인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또 나누고 있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성 바울로의 모범을 다라 과거를 잊고 덕을 쫓아서 아직도 더 가야만 하는 머나먼 길만을 꾸준히 바라보십시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진보하고자 하는 열정을 약하게 하고 없애는 나태와 소심증과 태만과 투쟁하십시오”(Coimbra연학 수사들에게 보낸 성 이냐시오의 서한)

성서 말씀 묵상

골로 2,20-3,4 :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NOTE;

제 10장 기도와 활동

26. 그는 일곱 시간의 기도 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신사정을 돕는 일로도 바빴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날 묵상하거나 독서한 하느님의 사정을 명상하며 보냈다. (자서전 62쪽)

만레사에서 이냐시오는 전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헌신의 생활을 하였다. 하느님과 함께 통교하며 매일 매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며, 남을 위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사도로서의 성소를 느꼈으며 “과건 받음을 느꼈다.

그는 하느님께로 회심한 이후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명백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조언을 얻으러 오는 사람을 도와 주는데 자기 시간을 할애하였다.”

따라서 만레사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사도적 양성과 기도의 학교였다. 하느님 현존의 체험으로 그는 기쁨에 충만하였으며, 하느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고통스러워하였다. 하지만 내적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봉사로 일관된 것이었다.

성찰

1. 당신은 기도를 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에 대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식별해 왔는가?
2. 당신은 남을 위한 사람인가? 이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3. 당신은 영적 체험과 사도적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가 달리 말해, 당신의 기도가 자신의 생활을 변호시키는가? 또는 당신의 생활이 기도를 변화시키는가? 실례를 들어보시오

이냐시오적 통찰

"창조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창조주께 데려오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사람이 나 천사는 할 수 없다."((Coimbra의 연학수사에게 보낸 이냐시오의 편지)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5,1-5 :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 11장 이냐시오에게 있어 신앙의 학교였던 만레사

27. 그 무렵 하느님께서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다. (자서전 63쪽)
28. 첫째,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극진한 신심을 가졌고, 매일 성삼의 각위께 기도를 바쳤다.
29. 둘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손길로 언젠가 자신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는 거기에서 위대한 영성의 환희를 맛보았다.
- 셋째, 만레사에서 어느 날, 앞서 말한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하고 있는데 거양성체 때 새하얀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옴을 심안으로 보았다. 먼 훗날에 와서도 그는 이 일을 제대로 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한 그 성사에 어떻게 현존하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심안으로 분명히 보았던 것이다.
- 넷째, 그는 기도 중에 자주, 그것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인성을 심안으로 뵈었다.
- 다섯째, 한번은 그가 신심으로 만레사에서 1마일쯤 떨어진 성당으로 길을 나섰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했던 것 같다. 길은 강가를 뺨어 있었다. 길을 가다가 신심이 솟구쳐 그는 강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았다. 강은 저 아래로 흐르고 있었고, 거기 앉아있을 동안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비록 환시를 보지는 않았으나 영신사정과 신앙 및 학식에 관한 여러가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만사가 그에게는 새로워 보일 만큼 강렬한 조명이 비쳐왔던 것이다. (자서전 63-65쪽)

이냐시오에게 있어 만레사는 신앙의 학교였다. 거기에서 얻은 내적인 비전을 통해서 성삼위, 창조의 은혜, 성체, 마리아의 협조에 의한 강생의 신비 등 영적 생활에 있어 활력이 되는 근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다. 각 카르도넬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영적 체험에 확신을 더해주는 위대한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일부로서 자신의 창조와 우주창조 안에서 자신을 전해 주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계기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놀라우신 능력으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고자 인간이 되시고, 성체 안에 항상 현존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냐시오를 자신에게로 이끄셨던, 카르도넬 강가에서의 체험으로 그는 그 순간 이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신비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제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31. 한참 만에 그 비추임이 끝나자 그는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자서전 66쪽)

순례자는 그 비추임이 끝나자 가르도넬 강가를 떠났다. 그는 그 근처의 길가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누구든지 나를 다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루가 9,28)

-예수의 십자가는 주님께 이르는 왕도(王道)며 예수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표징이요 기준이다. 어느 한곳에도 정착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를 뿐 결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쉬지 않고 따르는 순례자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세주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완고하게 고수하려 하고,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랑의 신비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될 뿐이다.

이냐시오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 자신의 길을 떠났다. 순례자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

성찰

1.당신은 변화, 위험, 미지의 것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가?

2.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생기는 희생을 수용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수용하는가? 당신 삶에서 그 실례를 들어보시오

3.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을 하느님께 정착시키고 팔을 이웃에게로 열려진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다. 그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당신은 실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이나시오적 통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눈앞에 모시고 그분과 서로 이야기한다. 즉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어떻게 내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서 현세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셨는지 생각하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내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동하라.”(영신수련 53번)

성서 말씀 묵상

고린전 1, 17-25 :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다름입니다.”

NOTE;

제 13장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그리고 성지로 향한 여정

35. 1523년 초에 그는 배를 타러 바르셀로나로 떠났다. 사람들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그는 혼자 가고 싶어했다. 하느님 한 분만을 안식처로 모시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가 이탈리아말도 라틴말도 모르니까 수행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과, 동행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느냐고 설명하며 사람을 꼭 데리고 가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몸이므로 비록 카르도나 공작의 아드님이나 아우가 수행해 준다하여도 싫다고 대답하였다. 동행인을 데리고 가다가 배가 고파지면 동행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넘어지면 붙들어 세워주길 원할 것이며 그에게 의지하게 되고 짐을 둘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다. 자기는 신뢰와 애정과 희망을 오직 하느님께만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것이었다. (자서전 68쪽)

1523년 이냐시오는 바르셀로나로 떠났다. 그는 먼저 이탈리아로 가서 베니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설교하셨으며 죽으셨던 성지로 가기를 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을 알고 여행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가졌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팔레스티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만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비도 없고, 인간적인 안전도 없이 자신이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께 모든 신뢰와 사랑을 두고, 예수님만 동반하고 행하는 긴 순례였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그는 가난한 사람 중의 가난한 삼으로 출발하였다. 출항 전에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대 여섯 개의 동전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완전히 빈털털이가 되고자 돈을 의자 밑으로 버렸다. 1년이 조금 넘도록 이냐시오가 겪어왔던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몬세라트-그가 회심했던 산

만레사-기도와 사도의 학교

바르셀로나-미지의 세계를 향한 출발점

성찰

1.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가? 그것들을 요약하고 당신의 삶의 역사를 적을 수 있는가?

2.당신은 어디에서 안전을 얻기를 바라는가? 명예, 돈 가정, 과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3.당신은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는가?

4.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있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영신적 위안이라 하는 것은, 영혼에 일종의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자기와 창조주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하고, 따라서 영혼이, 지상의 아무 물건도,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총회에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픔에서나 또는 직접 하나님의 봉사와 영광에 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신적 위안이란 신덕, 망덕, 애덕을 더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을 천상의 일들과 자신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그 결과 영혼이 자기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영신수련 316번)

성서 말씀 묵상

루가 12,22-32 :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김. “왜 걱정하느냐?”

NOTE:

제 14장 가에타에서의 사건과 이냐시오가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해줌

38.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장을 하고 있던 어느 모녀와 어떤 젊은이 하나가 그와 동행을 하였다. 그들 또한 순결을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선 것이었다. 그들이 여인숙에 당도하였을 때, 거기에 여러 군인들이 커다란 모닥불을 지펴놓고 빙 둘러앉아 있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주면서 몸을 덥힐 생각이면 가까이 다가오라고 짐짓 권하였다. 그 뒤에 군인들은 흩어지고 모녀는 위층에 방을 얻어들었고 순례자와 젊은이는 마굿간에다 자리를 정하였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는 갑자기 위층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놀라서 일어나 보니 그 모녀가 안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자들이 자기네를 겁탈하려 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에 그는 격분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하고 벽력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의 항의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격렬해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해치고자 하지 않았다. (자서전 72쪽)

이냐시오는 여인들과 젊은 소녀들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다. 그는 자신이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모녀의 정결을 수호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결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힘을 하느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 심지어 상상력과 인격 전체에 있어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 순결이 요구되는 것은 순결 자체를 위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때때로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인 관습과의견,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성찰

- 1.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성령의 성전으로 잘 보존하고 순결을 지키는 데 따르는 갈등을 극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 2.당신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 3.정결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이웃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옷을 입는 방식 등에 관하여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실례를 들어 보시오

4.이성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순명, 청빈, 정결의 수도 서원과 기타 열심과 선행을 위한 서원을 예찬할 것이다.“ (영신수련 357번)

성서 말씀 묵상

고린도 전서 6,12-20 :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NOTE:

제 15장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의 가에타, 로마, 베니스

42. 하루는 부유한 스페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더러 무슨 일을 하러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물어왔다. 그의 목적을 알고 나자 부자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먹이고 출발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며칠간 자기 집에 묵어 가게 하였다. 만레사에 있을 때부터 이 순례자는 식탁에서 짤막하게 말대답을 하는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하느님에 관해서 후에 이야기할 때 사용할 어떤 사안들은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43. 그래서 그 선량한 사람과 식구들은 그에게 매우 호감을 가져 그가 더 머물러 주었으면 했고 나중에는 그를 붙잡아 두려고까지 하였다. (자서전 75쪽)

지중해를 건너서 가에타에 도착하는 데에는 5일이나 걸렸다. 도중에 풍량이 심하여 배에 탔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다. 그들은 교황으로부터 순례자들을 위한 강복을 받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 로마를 향하였다. 수 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도보로 떠난 이나시오는 베니스에 도착했다.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구걸해서 살았고, 성 마르코 광장의 현관에서 잠을 잤다.

하루는 부유한 스페인 사람을 만났는데, 이나시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나시오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으며, 배가 출항할 때까지 자기 집 손님으로서 머물러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나시오와 그 사람과 그 가족들 간의 우정은 깊어지게 되었다.

이나시오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비록 그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반자도 없이 순례를 떠났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참석하였다. 사실 그는 모든 피조물과 통교를 나누시는 성삼의 사랑의 계시를 받고서 흠뻑 취해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복음서와 성체 성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었고, 인간은 아버지 하느님께로 여행을 하는 순례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적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나시오는 체류 등의 호의를 베풀어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1523년 2월 18일 성지를 향하여 베니스를 떠났다.

성찰

1. 당신이 나누고 있는 우정은 참된 것인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
당신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가?

2.집이나 직장, 학교에서 신앙인으로써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나눌 수 있는가?

3.당신은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 실례를 들어보시오.

4.어떤 기준을 두고 친구들을 선택하는가? 개인적 매력, 돈, 사회적 지위, 아니면 같은 이상인가?

이나시오적 통찰

“내가 우리 주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비록 그가 큰 죄인일지라도 나는 받는 사람이며, 그와의 대화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끌어 낸다. 게다가 우리 주 하느님께서 당신께의 봉사를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과 이야기 할때, 모든 면에서 얻게 되는 사람은 나이다.“(1536년 2월 12일 이냐시오의 편지)

성서 말씀 묵상

고린도 I 9, 15-23 :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NOTE;

제 16장 예루살렘에서의 이냐시오

45. 성도가 보이는 지점에 이르기 조금 전에 수도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그들을 마중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일행은 모두 당나귀에서 내렸다. 성도를 바라보자 순례자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커다란 위안을 느꼈으며 다른 이들의 말대로, 결코 자연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희열을 느꼈다. 그는 성소를 찾을 때면 언제나 같은 경건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소들을 계속 찾아보았고, 이러한 신심과 더불어 영혼들을 돕겠다는 굳은 각오를 또한 세우고 있었다. (자서전 77쪽)

순례자들의 집단은 터어키인의 경호와 프란치스코회 사제들을 동반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성도를 첫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 오는 수도자들의 행렬을 보자 그들은 당나귀에서 내려 바로 그때 그들은 햇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경이로운 예루살렘을 보았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였다.

우리는 이 집단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 여행하는 인류의 상징이며, 그 지도자가 예수와 함께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도상인 순례하는 교회의 상징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 중의 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요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의 성사가 된 우리의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요구한다. 목상을 하듯 큰 존경심을 가지고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가기 위해 올리브 산으로 향하는 성지를 방문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성부의 찬양자를 보면서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보았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서는 두 개의 큰 결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 자신의 남은 여생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
- 자기의 형제들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다른 순례자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위해 프란치스코회 구아르디안 신부를 찾아갔다. 그는 수도회에 머무르지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고백 성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관구장은 그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냐시오는 성지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미지의 곳으로 다시 떠났다.

성찰

1. 당신은 올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몇 줄로 적어 보시오

2.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당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은 무엇인가?

3.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4. 당신은 영신지도 신부로부터 조언을 듣는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은 의견이나 뜻을 떨쳐 버리고 신뢰 속에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성모님, 성 요셉, 하녀, 그리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며 가능한데 까지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곁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비천하고 부당한 종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또 관상하며 모든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신익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반성한다.(영신수련 114)

성서 말씀 묵상

마르코 3, 13-19 : “예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었다.“

NOTE;

제 17장 예루살렘에서 베니스, 페라라, 제노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돌아옴

51. 해가 저문 뒤 우연히 담장이 쳐진 곳에 이르렀는데, 보초는 그가 첩자라고 단정하고 즉각 체포해 버렸다. 그들은 대문 가까운 작은 집으로 끌고 가 혐의가 있어 보일 때면 늘 하는 방식으로 문초를 시작했다.
53. 대장의 막사에 이르러 병사들은 그를 지하실에 가두었다. 조금 후에 대장이 그를 심문하였다. 일체의 예의를 무시한 채 띄엄띄엄 몇 마디만으로 짤막하게 답변을 하자 대장은 그를 미치광이로 단정하고서 끌고 온 부하들에게 “이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이자의 물건을 내주고 당장 쫓아버려!” 하고 외쳤다. (자서전 84-85쪽)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되돌아온 이냐시오는 페라라에서 제노아까지 가로질러 가야만 했는데,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전쟁 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양국의 군대 주둔지 사이를 통과해야만 했다. 프랑스 군인들이 그를 첩자로 오인하여 체포해서 심문하고 채찍질을 하는 등 죄인 취급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지상 생활을 영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깊이 느꼈다. 예수처럼 그는 쇠사슬에 묶여 도시를 지나 대장의 막사까지 끌려갔다. 끌려가던 도중에 그는 호기심 많은 행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에 그는 만족하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헤로데와 빌라도에게 끌려갔던 것을 연상하였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큰 거룩함을 준비하신다.” 그가 한 유일한 권고의 말은 주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순례자는 첩자와 악당 취급을 당하였다. 대장 앞에 끌려 왔을 때 그는 미치광이로 인정되어 쫓겨났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였다. 그는 어리석은 미치광이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스도 자신도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급당하지 않으셨던가?

성찰

- 1.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그때 느낌은 어떠하였던가?
- 2.당신은 어떤 성인을 혹은 어떤 사도나 제자를 본받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가?

3.당신은 소박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는가?

4.불의한 경우를 당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직무를 주어서 보내시는 당신의 모든 종들과 친구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생각한다. 즉 그들이 사람들을, 우선 온전한 정신적인 청빈으로 인도하고, 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찬성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현실적 가난에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또 업신여김과 모욕함을 원하기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와 주도록 분부하시는 말씀을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청빈과 모욕에서 겸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 첫째는 부귀와 반대되는 가난이요, 둘째는 세속적 명예와 반대되는 업신여김과 모욕당함이요, 셋째는 오만의 반대인 겸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사람들을 모든 다른 덕행으로 이끌어 들여야 할 것이다.(영신수련 146)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10, 32-39 :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NOTE;

제 18장 바르셀로나에서 학업을 시작함

55. 자기 영혼에 일어난 일과 그 일 때문에 그때까지 학습에 거의 진전이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연후에 그는 선생에게 "바르셀로나에서 연명할 빵과 물만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고 언약하였다. 단단히 작심하고서 이 언약을 하고 나자 그런 유혹은 그에게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다. (자서전 89쪽)

이나시오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학업을 통해 자신이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셀로나에 돌아오자마자 학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이 따랐다. 예를 들어, 그가 공부를 시작할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선한 희열이 다가왔다. 그래서 분심이 계속 들었던 것이다. 이나시오는 이것이 "빛의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으로 새로운 유혹의 일종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생각들은 그의 장래 사도직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몰랐다. 그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큰 악에는 큰 치료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함이 없이 아주 단순하게 자신을 고백자에게 개방하고 기도하였다. 이나시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할 작오가 되어 있었다. 이런 강한 의지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갔다. 그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실하면, 내가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마태오 25,21 참조)

"마음이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고 매일의 삶의 현실 안에서 이것을 추구하였다.

성찰

- 1.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내린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는가?
- 2.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유혹 중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가?
- 3.당신은 전문직에 대해, 사도직에 대해, 자신의 양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4.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해보겠다, 나는 무엇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는 문장

표현들에 함축된 태도의 차이점을 아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선택에 대하여 내가 할 바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함이니, 즉 내가 나의 지혜로써 올바르게 또 충실하게 검토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빈다(영신수련 180번).

성서 말씀 묵상

루가 14,25-33 :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큼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꼼꼼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NOTE;

제 19장 바르셀로나에서 2년간의 학업 후 알칼라에서 학업을 계속하던 중 사도적 열정으로 인해 투옥됨

62. “그때 칼릭스토는 세고비아에 있었는데, 그가 투옥된 소식을 듣고는 증병을 앓고 최근에야 회복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곧장 돌아와서 순례자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다.1.. 그런데 칼릭스토는 며칠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었다... 순례자가 감옥에 들어간 그 날부터 그들이 순례자를 석방시켜 줄 때까지, 42일이 되는데... (자서전 95쪽)

이나시오는 진실하고, 개방적이며,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상대방의 기쁨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허물을 잊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말에서 보다 행동으로 우정을 보여 준 그러한 우정의 은총을 받았다.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칼릭스토는 같은 이상과 같은 생활 양식으로 하나가 된 그의 참된 친구였다. 이나시오가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 친구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나시오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증병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던 중이었지만 그것이 이러한 현실적 방식에서 자기의 우정을 입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행복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마태오 5,11-12)

성찰

- 1.당신이 느끼기에 깊은 우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 2.당신은 자신의 불안, 기쁨, 성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이미 발견하였는가?
- 3.당신은 무엇이나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정을 나눈다 할지라도 숨길 것은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성 이나시오).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7,9-23 :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20장 살라망카에서 다시 투옥됨

69. “살라망카에 제아무리 죄창살과 죄사슬이 많다고 해도 하느님 사랑 때문에 무엇이고 감수하겠다는 제 소망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무렵 감옥의 죄수들이 전부 탈주한 사건이 생겼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던 그 두 사람만 도주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문이 열린 채로 두 사람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깊은 감화를 받았고 거리의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큰 건물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주어 감옥으로 삼게 하였다. (자서전 103쪽)

알칼라 대학에서 18개월간 공부한 후 그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살라망카의 대학촌에 유숙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체포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하여 22일간 감옥에 갇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시오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자기의 목적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도 똑 같은 경험을 하였다(사도행전 4장) 비록 죄사슬에 묶여 투옥되었지만 이나시오와 그의 동료는 내적인 자유를 누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죄사슬이 사랑을 속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 시금석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이러한 투신을 하는 데 있어 참된 가치와 진정한 진보는 외적인 것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타고난 능력에 의해 측정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자아를 극복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의 진실성과 관대함에 달려 있는 것이다(이나시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위엄을 빛나게 한 자유요 승리였던 것이다.

성찰

- 1.당신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양심의 계발이 당신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길러주는가?
- 2.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막는 죄창살과 죄사슬은 무엇인가?
- 3.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사람들의 견해와 충돌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4.예수가 자신의 고통과 수난, 십자가를 알면서 따랐던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5.당신은 자신의 신앙, 정직함이나 정의에 투신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사람을 아는가?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용의가 있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게 되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유익함으로 가치여부가 되어야 한다.“ (St. Ignatius in Noasci Vita 48, p.425)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5,18-27 : “좋은 그 주인보다 더 나올 수가 없다.“

NOTE;

제 21장 학업을 계속하고 동료들을 모으기로 결정함

71. 이제 그에게는 살라망카에 갇혀 있을 때와 같은 소원이 떠올랐다. 영혼들을 돕겠다,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할 것이며, 목적이 같은 동지들을 모으고, 먼저 공부를 할 것이며, 목적이 같은 동지들을 모으고, 이미 모인 동지들을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파리에 가기로 결정한 뒤 그는 일행들에게 자기가 먼저 떠나 일행이 공부할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오는 동안 그곳에 남아서 기다리도록 타협했다.
72. 바르셀로나에 당도하니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로 여행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그곳에 큰 전쟁이 터졌다는 것과 여러 가지 구체적 예를 들고, 심지어는 그 자들이 스페인 사람은 불에 그을려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결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다. (자서전 104-105쪽).

살라망카에서 순례자는 자기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에게 이것은 긴박한 필요성으로 보였던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이나시오와 연결되었던 기존의 집단에 가세하였다. 순례자는 동지들의 집단에서 참된 지도자요 중재자가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해지도록 그들에게 봉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고, 열정적으로 각자를 자극하여 그들을 돕는데 자신을 내어놓기를 갈망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느낀 그의 매력의 비밀은 그가 자신의 태도, 동기, 그리고 자신의 생활 양식 면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화하려는 데 있었다. 그의 모범은 설득력이 강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상처럼 행동함으로써 보다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술회하였다. 그는 이미 자신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확신시킬 수 있었다.

미래를 바라보며 그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로 떠났다.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곳에서 학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지들 없이 혼자 떠났다. 그는 후에 동지들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성찰

- 1.당신은 자신의 생활 양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이끌 수 있는가?
- 2.당신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가? 특별히 당신이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3.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가?

4.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주님의 뜻을 따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실망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당신 영혼을 평화롭게 간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생각들을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당신 영혼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1548년 9월 15일 Francis Borgia에게 보낸 편지).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35-42 : 요한과 안드레아를 부르심

제 22장 빠리에서의 이냐시오

73. 그는 스페인 사람 몇몇과 어떤 집에 하숙을 정했고, 전에 공부할 때 진도가 너무 빨랐던지 자신의 기초 실력이 너무나 빈약함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몽테규로 인문학을 공부하러 다녔다. 그는 나이 어린 소년들 틈에 끼어 파리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따라 공부를 했다...그는 구걸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되었고, 살던 집을 나와야만 했다.
74. 그는 무죄한 어린이 성당 뒤편에 있는 상 자크 숙박소에 몸을 의탁했다. ... 공부하기에 몹시 불편하였다.
76. 하루는 스페인 사람 수사 하나가 해마다 플란더즈에 가서 두어 달 지내면서 경비를 벌면 한 해 동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귀뜸을 해주었다. 하느님께 이 생각을 의탁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자서전 115-116쪽)

이냐시오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에서 이방인이요, 거지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지닌 부자였다 아주 겸손하게 그는 파리의 학습 방식에 따라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다시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만 했다. 그는 겨울의 모진 추위, 학교까지의 먼 거리, 복통의 재발이란 온갖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돈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함께 봉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만, 학업을 끝낼 때까지 자기를 기꺼이 도와 줄 수 있는 부유한 스페인 상인이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플란더즈로 가는 것이 낫다는 충고를 받아들였다.

이냐시오는 많은 학생들의 문제들을 나누었다. 그것은 그에게 개인적 희생과 겸손, 기도, 책임성 있는 결단, 모든 선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섭리에 항상 자신을 의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도와 준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도와 주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성찰

- 1.당신의 경제적 사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신에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가? 당신은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2.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가?
- 3.당신이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어떻게 착수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주시도록 맡기고 그분을 신뢰합시다.”(Bartoli, Vita IV, 23, p328)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6, 25-34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NOTE:

제 23장 세 동지를 회심시킴

77. 처음 플란더즈에서 돌아와서는 어느 때보다 영적대화에 진지하게 몰두했고 세사람을 한꺼번에 영신 수련을 시켰다. 그들은 페랄타, 소르본느에 있던 카스트로 학사와 상트 바르브 대학에 다니던 바스크 사람 아마도르였다. 그들은 사람이 크게 변하여 가진 것을 모조리, 심지어는 책까지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는 파리를 돌아다니며 애증을 구했다. 그들은 상 자크 구호소로 살러갔다. 그곳은 전에 순례자가 기숙했던 곳이다. 위의 두 사람은 유명 인사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학가에 굉장한 소동을 일으켰다. 스페인 사람들이 교수를 모시고 와서 수많은 이유와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들을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무기를 들고 몰려와서 그들을 구호소 밖으로 끌어냈다. (자서전 117쪽)

신앙에 투철한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냐시오는 하느님에 의해 영감 받은 방법으로 뛰어난 수단인 영신수련을 이용했다. 그 결과 3명의 피정자, 3명의 회심자, 3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자신이 친밀히 알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박해와 위협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되었는데, 싸움은 영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훌륭한 심리학자로서 피정에 대한 이냐시오의 방식은 쉬운 것만은 아니었기에 때로 피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정자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고독 속에 있도록 초대하였다. 피정자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30일 혹은 적어도 8일 동안 철저하게 혼자 있어야 했다. 그것은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 위한 하느님과 개별적인 만남이었다.

피정 중 피정자는 세 가지 질문을 숙고해야만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던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영신수련 53,107)

성찰

1. 매일의 기도의 주기는 어떠한가?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세심하게 반성하는가? 당신은 이미 피정을 해 본적이 있는가?

2.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 또한 따르고자 하는가?

3. 당신은 매일 저녁 성찰을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성찰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영성 수련이라 함은 양심을 살피는 방법이나 묵상, 관상, 염경, 묵도 등의 방식 및 다음에 말할 다른 영신적 행사들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마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나 길 걷기나 뛰기 따위의 모든 것을 체육 또는 신체의 단련이라고 하듯이, 영신면에 있어서도 모든 사욕편정을 깨끗이 없애고 구령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 한다(영성수련 1 번).

성서 말씀 묵상

루가 19,1-10 :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NOTE;

제 24장 뒤따르는 시련

78. 파리에서는 순례자를 비난하는 굉장한 소란이 일어났으며 스페인 사람들 측에서 특히 심했다. 우리의 선생 구베아는 자기 학교에 다니던 아마도르를 미치광이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냐시오가 상트 바르브에 오기만 하면 학생들을 타락시키는 자로 몰아 그를 두들겨 패주기로 짜 놓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 (저서전 118쪽).

비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십자가들이 순례자의 길을 아로새겼다. 학칙을 어긴 학생을 방에 가두어 두고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주는 “salle”이란 벌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냐시오가 복음의 가치에 관해 일깨우고, 회심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자 세상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자신의 전하고자 하는 세계를 알았고 또한 그것을 복음의 빛 안에서 판단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보고, 말하고, 행하고자 한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으며,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자기 삶에 주어졌던 주님의 은총을 회상하며 기억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이해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만사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음미하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이냐시오의 마음에 자리한 이 열정적인 사랑이 다른 젊은이를 불타게 하였다.

성찰

- 1.당신이 복음적 가치에 투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반대를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2.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의 기억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3.그리고 이해력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 4.또한 당신의 의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세상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는 하느님을 위해서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박해와 혼란을 빚어내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는 하느님을 위해 큰일은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다(Bartoli, Vita, IV 36, o357).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5,8-17 :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NOTE:

제 25장 스페인에서 알았던 동지들이 이나시오를 저버림

80. 칼릭스토는 포르투갈 국왕의 중정으로 찾아갔으나 끝내 파리에 오지 않았다.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어느 신심깊은 부인과 함께 황제령 인도로 건너갔다. 나중에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왔으나 또 다시 인도로 건너갔으며,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어 스페인으로 돌아왔다. 그는 살라망카에서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다.

카세레스는 고향 세고비아로 돌아가 자기가 가졌던 옛날의 목적은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로 살아갔다.

아르테아가는 훈작을 받았다. 훗날 예수회가 이미 로마에 자리를 잡았을 무렵 그는 인도에서 주교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순례자에게 편지를 내서 회원 중 한 사람에게 그 주교직을 양도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하는 답장을 받고는 황제령 인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 상황이 이상했다. (자서전 119-120쪽).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칼릭스토, 카세레스, 아르테아가는 “예수의 벗“이 되기로 했었던 이나시오의 세 친구였지만 제각기 흩어져 자신의 길을 갔다. 하느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셨다. 우리의 운명은 의심할 나위없이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자유와 책임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즉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순례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집단이 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그들이 투신하고자 했던 열정을 약하게 했던 태만함이 그의 동료들에게 있었던가?

“영적인 면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심각한 결점보다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결점이나 실수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큰 결점은 쉽게 드러나지만 작은 결점은 드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심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나시오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목표로 두지 않았다.

그는 영적 생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충고를 주고 있다: “장시간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또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기록하게 되어라.“

성찰

- 1.당신은 기도, 성사생활, 그리고 매일의 성찰에 충실한가?
- 2.당신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의 행위를 자신과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3.당신은 순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4.당신은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되이 간청하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영혼이 고독할 때에는 결코 어떠한 변경이라도 해서는 안된다. 오직 고독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가진 결정한 것을 굳게 지킬 것이며, 또는 전에 위안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한 결심을 끝까지 고수한다.(영신수련 318번).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7,21-27 :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NOTE;

제 26장 첫 예수회원이 될 두 명의 친구를 만남

82. 그 무렵 그는 피에르 파브르 선생과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선생을 사귀게 되었다. 그들은 후에 영신수련을 받고 난 다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동지가 되었다.

본과 과정에 다니던 시절엔 사람들이 전처럼 그를 핍박하지 않았다. 한번은 프라고 박사가 아무도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순탄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까지 하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젠 아무한테도 하느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을 마치는 대로 저는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서전 121-122쪽)

이나시오는 파리에 체류할 때 파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보이 출신의 피에르 파브르와 나바레 출신의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는 두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피에르 파브르는 40세에 타계하였는데, 그는 생의 첫 부분을 초라한 농부였지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족들과 함께 사보이에서 보냈고, 생의 두 번째 부분은 파리에서 학업을 마친 후 교황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어려운 사도직에서 이나시오와 다른 동지들과 함께 “예수의 벗”으로서 보냈다.

피에르 파브르가 겸손하고, 의지가 굳고, 조직적인 스페인출신의 만학도였던 이나시오를 파리에서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이나시오의 교훈적인 말을 되풀이하여 들음으로써 점차적으로 배워 이나시오의 지정한 첫 번째 제자요 벗이 되었다. 그는 이나시오와의 우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재산도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 후, 마침내 그는 나의 영적 스승이 되었다.”

파브르는 동지들 중 첫 번째로 사제가 되었으며, 나중에 이나시오는 파브르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발하였다. 파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도록 빠져버린” 또 다른 순례자였다. 그는 이나시오로부터 거짓된 겸손 없이 단순하게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신학자이자 성서 주석가이고 聖人이었으며, 자신의 이상을 다른 동지들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영적 여정에 관한 내용을 써서 우리에게 남겼다.

성찰

1. 당신은 CLC성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CLC성소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것은 무엇인가?
3. 당신의 CLC성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비록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주 천주께 봉사함을 모든 곳보다 존중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존엄하신 하느님을 두려워함을 많이 예찬해야 한다.(영신수련 370번)

성서 말씀 묵상

에페소 1, 15-23 :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OTE;

제 27장 프란치스코 사비에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인도함

82. 그들은 후에 영신수련을 받고 난 다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동지가 되었다.(자서전 121쪽).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는 이냐시오에게 피정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피정자였고, 이냐시오의 동지요 벗이었다. 파브르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짧은 생애로 1506년에서 1552년까지 살았다. 그는 27세에 회심하여 31세에 서품을 받았고, 5년후 인도로 떠났다. 그는 46세에 중국 해안이 보이는 곳에서 죽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를 선교의 수호 성인으로 받들고 있다.

그는 파리에서 이냐시오와 파브르와 함께 공부할 때부터 이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으며, 이들의 우정은 너무나 깊었으며, 그가 동방에 떠나 있을 때조차도 지속되었다. “그는 친구에게서 받은 친필 서명을 마치 성인의 유품처럼 자기 목에 걸고 다녔다.“ 그는 적극적인 선교활동 중에도 진정한 관상가였다. 밤에 성체 앞에서 드리는 장시간의 기도는 동방에서 느끼는 극도의 격리감과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가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이냐시오는 그에게 다가가 “프란치스코, 만일 당신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하였다. 영신수련을 한 후 그는 변화되었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사제요, 사도요,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11년간의 선교활동 동안 그가 여행했던 거리는 지구를 세 바퀴 도는 만큼이나 되었다. 인도에서 그의 동료 회원 한 사람이 “그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위엄을 갖추고, 꾸밈이 없이 항상 온화한 표정과 미소를 띠고 있었다. 또한 그는 말을 적게 하나 그의 말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지나가는 것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끌지 못했으며, 그는 교만을 극복하여 겸손하였고, 늘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영원한 것들로 향해 있었다.

성찰

- 1.당신은 세상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과 그러한 부르심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우선이 되는가?
- 2.복음화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3.당신은 현대세계에서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당신은 실생활과 기도생활을 어떻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자기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권위를 드러냄으로써가 아니라 겸손의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Bartoli, Vita IV, 36, p365).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9,35-38 :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10,1-10 :

NOTE;

제 28장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어 냄

86. 이때가 1535년이었고, 동지들은 1537년 성 바오로 회개 기념일에 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쟁이 터져 그들은 1536년 11월까지 머물러 있었다. 순례자가 출발하려는 즈음, 그는 자신이 종교 재판관에게 고발당했으며 자기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소환하지 않자 그는 직접 종교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가 들은 바를 진술하고 자기는 스페인으로 떠날 몸이며 일행이 있다고 설명하고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간청했다. 종교 재판관의 답변은 기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보기에 그다지 중대한 사건은 아닌 듯하다는 것이었다. 재판관은 단지 그의 '영신수련'만 보자고 요구했다. 그것을 읽고 나서는 극구 칭찬하며 순례자에게 사본이 있으면 하나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순교자는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소송이 계속 될 것이라고 재강조했으나, 종교 재판관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순례자는 공증인과 증인을 모두 재판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건의 기록 전부를 적어두었다. (자서전124쪽)

1535년 이냐시오는 45세였으며, 그의 성격과 인품은 그때까지 형성되었다. 스페인으로 떠나려 했을 때 그는 다시 종교재판에 걸렸다. 그는 순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꺼이 교회법정에 출두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담하게 비방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영신수련 사도직이 해를 입지 않고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판결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작은 동료들의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의무였으며, 그는 그것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업과 그 사업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이냐시오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하느님께 봉사하는데 있어서 태만하게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과 정의의 수호자의 자세이며, 분노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 나눈 깊은 우정의 결과였다.

성찰

- 1.당신은 교회와 일치합니까? 당신은 교회를 위해 증언하고 교회를 수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 2.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당신에게 힘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 개성의 어떤 부분인가?
- 3.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 당신의 약점과 소홀한 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태만의 죄'에 중요성

을 부여하는가?

4.당신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참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는 바람을 거슬러 갈 때 보다 더 나은 때가 결코 없다“(Bartoli, VitaⅢ,35.p253).

성서 말씀 묵상

고린토Ⅱ 4, 7-15 :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NOTE;

제 29장 아스페이티아에서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로 결심함

88. 이 숙박소에서 그는 자기를 찾아 온 여러 사람과 하느님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어린이들에게 매일 교리를 가르치기로 작정했었으나, 형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극구 반대했다. 그는 한 사람만 와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단 일을 시작하자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를 찾아 왔고 그의 형까지도 교리를 들었다. (자서전 122쪽).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이냐시오의 건강은 좋지 않았다. 그때 그의 스페인 동료들에게는 자기네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긴급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쉬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의 가족과 관계된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파리에서 스페인으로 여행해서 바스크 지방에 있는 자기 고향 마을 아스페이티아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들 집에 머물지는 않았다. 그는 거지들과 병자들과 함께 병원에 묵고자 다시 한번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었을 때 보여 주었던 나쁜 표양에 대해 보상하고자 원했던 것이다. 그의 마음은 충만한 평화와 기쁨으로 차있었지만 그의 형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환경에 반대하였다.

이냐시오는 하느님 나라의 전파라는 관점 하에서 모든 것, 예를 들면 영적 담화, 어린이들과 대중들에게 교리 교수, 사회사업과 같은 것을 행하였다. 그는 부도덕과 노름에 반대해서 투쟁하였다. 우리는 그의 활동에 대한 당신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백성들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해야 했다. 그들은 나무들과 집의 벽에 올라갔었지! 그의 설교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지속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심이 일어나는 등 큰 영적 결실을 가져왔다.“

그가 행하고 있던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자신의 고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 안에서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길 수는 없다.“

성찰

- 1.당신은 당신의 종교적 투신을 방해하지 않은 당신의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 2.하느님께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당신은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까?
- 3.당신은 어린이들과 대중에게 종교적 교훈을 전하는 데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

각합니까?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께 봉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Ribad, De Actis M.II, 369 and 372)

성서 말씀 묵상

루가 4, 16-30 :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NOTE;

제 30장 계속되는 순례자의 모험

91. 그는 제노아에 도착해서 볼로냐로 가는 길을 잡았다. 이 길에서 그는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한번은 길을 잃고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은 위쪽에 있었는데 무작정 가노라니 길은 점점 좁아져서 끝내는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돌아서지도 못할 사태에 빠져 버렸다. 그는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는 한참을 가야만 했다.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강물로 떨어지지나 않나 겁이 났다. 그로서는 이때가 겪어본 가장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든 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는 그곳을 벗어났던 것이다. 볼로냐로 들어갈 작정으로 조그만 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는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진흙 투성이가 되어 일어서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자서전 128-129쪽)

순례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방문해서 자기 친구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 아스페이티아, 알마잔, 시구엔자, 톨레도와 발렌시아를 가는 긴 여행을 해야만 했다. “비록 그들이 그에게 돈과 선물들을 주었지만 그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우정에 의해서 조차도 망설임이 허락되지 말아야 하는 “순례자“였다

몇 시간조차 갖지 아니하고 그는 이태리를 향해 출항해서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을 겪은 연후에 제노아에 도착했다. 제노아에서 볼로냐로 가는 도중에 그는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길을 잃고 놀라서 개구리처럼 기면서 이나시오는 미소한 자가 되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단순했던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다.“ 그는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가 섞이고 또 서로 반대되는 감정들을 경험하였지만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외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참된 즐거움을 보는 것만큼이나 하느님의 참된 사람에게서 슬픔을 보는 것도 경이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양식과 돈 없이 홀로 날씨의 냉혹함, 병과 사고에 내맡겨진 “순례자“를 본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는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모두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성찰

1.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가끔 모욕, 궁핍, 그리고 고독에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것임을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는가? 복음서의 어느 구절이 당신을 이러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당신이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느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3.당신은 이미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한 영광을 보다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정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섭리 안에서 활동하신다.“(Ignatius of Loyola)

성서 말씀 묵상

로마 8, 35-39 :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NOTE;

제 31장 베니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신수련을 지도함

92. 오세스 학사라고 불리는 다른 스페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례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세우타(Cette)의 주교와도 대담을 가졌다. 그 역시 영신수련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영신수련을 받기로 결정했다. 영성수련을 받기 시작한 지 삼 사일 후 그는 순례자에게 속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한 말 때문에 자기로서는 영신수련으로 그릇된 도리를 배우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는 몇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만일 순례자가 자기를 기만하려 들면 그 책에 따라 논증할 생각이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영신수련에 크게 감화를 받아 드디어는 순례자의 생활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는 동지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다. (자서전 132쪽)

베니스에 있는 동안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을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피정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성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성인에게 속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다. 그러나 반만 진심으로 따르기로 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책들과 책의 요지를 가지고 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의 방어를 뚫고 나아가셨다. 이냐시오는 이 사람이 헌신적 사랑에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호세스는 전적으로 관대하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 그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의 벗이 되었고, 동지들 중에서 첫 번째로 죽게 되었다.

성찰

- 1.당신은 영적 생활에서 의심을 품고, 우유부단하며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이러한 것을 당신의 영적 지도자에게 말하는가?
- 2.필요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성소에 대해 질문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 3.당신은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 자신의 처분에 맡겨진 수단들, 예를 들면 기도, 성사, 영적 독서, 영적 지도, 친구와의 대화,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은 하느님의 뜻을 진지하게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추구하는가?

4.어떤 부분에서 당신은 한마음을 품지 못합니까?

이나시오적 통찰

“내가 받은 은혜, 즉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및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돌이켜 생각함이다.

나는 큰 경애심을 가지고 우리 주 천주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내게 주셨는지, 또 따라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안배하심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내 편에서도 당연한 이치와 의리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고 드려야할지 생각하고, 큰 경애심을 가지고서 무엇을 남에게 드리는 사람의 태도로, 나의 모든 것들과 나 자신을 함께 다음과 같이 봉헌할 것이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영신수련 234번)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NOTE;

제 32장 베니스에서 동료들과 재회하다

93. 베니스에서 승례자는 또 다른 핍박도 견뎌내어야 했다. 스페인과 파리에서 그의 초상이 불살라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많았다. 이 사건은 커져 급기야는 소송이 되었고 판결은 승례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1537년 초에 동지 아홉명이 베니스로 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각자 흩어져 여러 구호소에서 봉사하였다. 이삼 개월 후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여행길의 축복을 받으러 로마로 갔다. ...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베니스로 되돌아 왔다. 서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나시오와 함께 서품을 받았다. (자서전 133쪽)

이나시오는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진리가 승리하고 있음에 기뻐하였다. 재판은 모든 점에서 그에게 유리했다. 그대 아홉 명의 “주님 안의 벗들“이 성인의 환영을 받으며 베니스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며 두달 이상을 보냈다. 비천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들은 겸손하게 되어갔다. 예수회의 2대 총장이 된 라이네즈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다. “동료들 중 다섯은 불치 병자를 위한 병원에, 나머지 다섯은 성 요한과 성 바오로 병원에 있었다. 우리는 그가 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학업을 제쳐두었다. 파브르(Faber)는 특별히 고백성사를 주는 데 헌신하였고, 사비에르(Xavier)는 열정과 사랑, 그리고 자기 극복에 탁월하였으며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오물을 빠는 것까지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료들은 겸손함을 배웠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마태오 11,29)

성찰

- 1.당신은 학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2.당신은 장차 자신이 하게 될 일을 미리 앞당겨 실천을 하고 있는가? 있다면 예를 들어 보라.
- 3.당신 삶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인가? 가난한 사람들과 얼마나 연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 4.사제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이나시오는 자기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라. 우리 주 하느님께서 관대하게 대했던 이들에게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Paris June 1532)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3,1-16 :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하라."

NOTE:

제 33장 로마로 가는 도중 라스토르따에서 큰 은총을 입음

96. 일행은 서너 무리로 나뉘어 올라갔으며 순례자는 파브르와 라이네즈와 한 무리가 되어 로마로 갔다. 이 여행길에서 그는 하느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았다.

사제가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을 준비하고 성모께서 자기를 성자와 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일년간 미사를 지내지 않고 보내기로 결심한 바 있었다. 로마를 몇 마일 남겨두고 하루는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는 자기 영혼에 크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를 당신의 성자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환시를 선명히 보았으며, 성부께서 자기를 성자와 함께 있게 해 주셨음을 추호도 의심할 바 없었다. (자서전 135 쪽)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 줄 교황 바오로 3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료들은 다시 한번 로마로 향해 떠났다. 그들은 세상 어느 곳이든지 파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중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순례자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라스토르따 성당에 멈추어 기도를 하었는데 그 때 이냐시오는 자신 안에서 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로마에서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기 내심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신비적 통교였다. 이냐시오는 마음을 항상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원의를 하느님께 향하게 하면서, 또 하느님과의 친교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러한 은총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종종 천주의 모친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중재를 통한 청원을 하곤 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갔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로 나아갔다.

성찰

1. 당신의 삶 안에서 성모 마리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이며,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2. 당신은 기도 중에 주님과의 친교를 진심으로 청하고 계속 추구함으로써, 주님과의 친교의 은총을 정말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가?
3.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데 당신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는가?
4. 기도 중에 당신은 누구에게(그리스도, 성부, 성령께) 자발적으로 말을 건네는가? 당신은 이것

에 대해 반성을 하는가?

이나시오적 통찰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답례로 하느님을 위해 더욱 더 일하십시오
“(Vita Bartoli, IV 26, p332).

성서 말씀 묵상

요한 14,23-28 :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NOTE;

제 34장 로마에서의 사회사업

98. 순례자와 동료들의 조력으로 로마에 교리학원, 산타 마르타 재활원, 고아원 등이 개설되었다. (자서전 139쪽)

이나시오는 예수회의 총장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주변화된 자들을 돌보았다. 그에게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 준 시간은 그리스도에게 내어 준 시간이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였다.

1. 1538년 교황 바울로 3세는 로마의 13개 구역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는 책임을 그들에게 주었다.

2. 1538년에서 1539년 사이에 로마에 큰 기근이 있었다. 동료중의 한 사람인 시몬 로드리게즈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러 나가서, 그들을 집에 데려와 발을 씻어주었으며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을 치료를 해 준 후에 교리를 가르쳤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약 300에서 400명) 더 수용할 방이 없었다. 일부 추기경들과 저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1542년 예비자를 위한 집을 건립하였다.

4. 매춘부들의 구제를 위한 산타 마르타 집을 건립하였다. 몇 명의 평신도가 이 일을 함께 하였다.

5. 경제적 또는 가정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젊은 소녀들을 위한 집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이웃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고아들을 숙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이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삶을 살았다.

성찰

1.당신은 자신의 국가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 주제에 관하여 생각해 온 해결방안이 있는가?

2.당신은 개인적으로 물질적 도움과 영적인 도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 두 방면을 항상 함께 생각하는가?

3.성서의 어떤 부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에 당신으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자비를 베푸는 일 중에서 주된 것은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Letter of Ignatius, Rome, 13th Aug. 1543)

성서 말씀 묵상

마태오 25, 31-46 : “여기 있는 보잘 것 없는 내 형제들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다.“

NOTE;

제 35장 인생을 위한 경험으로서 영신수련

99. 그분은 영신수련은 단번에 작성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리라는 생각에서 틈틈이 적어 두었노라고 대답하셨다. 예를 들자면 양심성찰을 크기가 다른 선으로 표시한 것과 그 밖의 예들도 그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사부께서는 '생활방식의 선택을 위한 길잡이' 등은 로올라에서 다리를 앓고 있을 때 경험했던 다양한 정신과 사상에 그 유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서전 140쪽)

이나시오는 생활과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다. 그 목적은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과 '영성수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목적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영성수련은 피정자의 인생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도록 피정자를 준비시키는 목적을 가진 피정이며, 한 마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다룰 수 있도록 피정자를 돕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라“는 것은 피정을 지도하는 이의 도움과 함께 기도으로써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인생의 경험이다. 이나시오 자신은 만레사에서 이 경험을 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의 만년에까지 그것들을 보완시켜 나갔다.

영성수련은 영원한 진리들, 창조, 죄, 구원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빛 안에서 피정자는 자신의 삶을 대면하도록 초대받는다. 그 다음 시기는 그리스도를 보다 더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지식을 심화시켜주는 시기이다. 그래서 피정자는 그리스도의 생애, 수난과 부활의 신비들을 관상한다. 영성수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다.

신비들을 관상하는 과정 안에서 피정자는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할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을 위한 삶의 선택이다.

영성수련은 가장 좋은 사랑의 학교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리스도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과 진리에로 들어가는 학교이다.

성찰

1. 성 이나시오처럼 당신은 자주 복음서를 읽고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하는가?
2. 당신은 어떻게 선택(자신의 성소의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은 더욱 더 명확하게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 내적 움직임들

에 대해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영신수련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감지하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인간의 진보와 또 그가 다른 사람을 도와 주는데 있어서 내가 가장 좋은 수단이다.“ (1536년 11월 16일 이냐시오가 Dotor Miona 에게 보낸 편지)

성서 말씀 묵상

루가 2,49 : (예수의 첫 번째 말씀)

루가 8,19-22 :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루가 23,46 : (예수의 마지막 말씀)

NOTE;

제 36장 예수의 벗들의 대부, 창설자, 그리고 회헌의 작성자인 이냐시오

101. “회헌“을 작성하시는 동안의 습관을 보면 사부께서는 매일 미사를 드리고, 당신이 다룰 소재를 하느님께 아뢰는 다음, 그것에 관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었다. 기도나 미사를 올리실 때에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자서전 141쪽)

이냐시오는 하느님과 끊임없이 통교를 누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위대한 신비가였다. 또한 그는 참된 지도자였다. 그의 통치는 진정으로 영적이었으며 항상 현실과 연관을 맺고 있었으며,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지 않은 아버지였다. 이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동료들 중 몇몇 위대한 사람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냐시오와 너무나 일치하여 있었다. “라이네즈는 이냐시오의 정신, 나달은 이냐시오의 마음, 폴란코는 이냐시오의 오른 손인 것 같았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결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은 ‘예수의 벗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냐시오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철저하고도 긴 기간의 양성 체계를 확립했다.

동지들의 사부로서 그는 사랑의 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더 좋아했어야 했지만, 그는 동지들이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의 충실성을 더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회헌의 작성이 필요함을 느꼈다. 따라서 회헌은 이냐시오와 그 동지들이 본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비전은 오늘날 예수회가 신앙에의 봉사와 정의 구현에로의 부르심으로 경험하고 있다.

“주님 안의 벗들“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예수회도 여전히 영신수련과 회헌을 통해 순례자가 교회 안에서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성찰

1. 신앙과 정의를 위한 봉사 속에서 “예수의 벗“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해하는가?
2. 당신은 개인적으로 예수 회원이나 예수회 공동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 회원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질문해 본적이 있는가?
3. 이냐시오의 순례의 삶에 동참한 후 당신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통합하는 원리로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냐시오적 통찰

“예수의 이름을 받드는 본 회 안에서 십자가의 깃발 아래 ‘하느님의 병사‘가 되어 주님과 그분의 지상 대리자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종신 정결의 장엄서원을 발한 후에 자기가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리 안에서 영혼들의 진보를 꾀하며, 말씀의 봉사와 영성수련과 자선사업과 특히 어린이와 무교육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전파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예수회 기본법 1)

성서 말씀 묵상

요한 21,15-22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NOTE;